



뉴저지 새언약교회는 24일 밤 오라델 개혁교회와 함께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드렸다.

새언약교회+오라델 개혁교회, 성탄전야 촛불예배

뉴저지 새언약교회(담임 김종국 목사)는 24일 밤 오라델 개혁교회(Reformed Church of Oradell, 담임 Bishop C. V. Singletary)과 함께 성탄 전야 촛불 예배를 드렸다. 20년 째 교회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두 교회는 해마다 성탄절 이브에 함께 촛불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새언약교회의 김종국

목사와 미국 교회의 싱글터리 목사가 함께 인도했다.

교육문 낭독(정원호 장로), 희망, 사랑, 평화, 기쁨을 상징하는 촛불 점화, 미국 교회 Chancel Ensemble의 특송, 정신호 장로와 Barbara Jones 장로의 성탄절 기도, 봉헌, 김성욱 집사의 특송 'O Holy Night', 그레이스 이의 성경 봉독, 새언약교회 찬양대의 특송

성탄 찬송 메들리, 김종국 목사의 성탄 메시지, 싱글터리 목사의 성탄 초대, 성탄 전야 촛불 점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 김종국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종국 목사는 마태복음 1장 21-23절을 본문으로 '예수, 임마누엘(Jesus, Immanuel)'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사·사진 제공=복음뉴스)